

#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기간 연장

### 군산시, 연휴로 기업 참여율 제고 위해 16일 늘려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공고했던 비응도 군(軍)부대 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사업 참가 의향서 제출 기한을 16일 연장하는 등 전체적인 공모기간을 대폭 연장,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모 일정에 따르면 군산시는 다음달인 10월 10일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 11일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공모지침에 의한 평가를 거쳐 11월 18일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

출한 기업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모 기간 중 추석연휴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참여 의사결정의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모기간의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모로 비응도 및 새만금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 천혜의 관광지인 군부대 부지의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업(개인)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의 대상지인 비응도 군부

대 부지는 군산시 비응도동 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4만8245㎡(상업용지)의 부지로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등 서해안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1년 사시사철 천혜의 바다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수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경기침체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정부주도 공공매립으로 입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최근 가속화되는 신시가지 구 개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이어 무너도 관광개발 사업 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새만금 지역 관광사업이 활력을 찾아가는 한편, 인근의

비응도 주변 해양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지의 개발방향은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레저형 콘도, 종합리조트 등이고, 신청 자격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국내외 개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자본율은 5% 이상 최대 출자자의 자본율은 최소 25% 초과(외국기업의 경우 30% 이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유치지원단 (☎063-454-4041~404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자매도시 김천시청 광장에서 우리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 군산시, 우수 농산물 교류 판매

### 자매도시 김천 방문 직거래장터 열어

군산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자매도시 김천에서 홍보 판매되며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4일 시에 따르면 자매도시 김천시청 광장에서 우리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어 김천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교류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민중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군산시 농산물유통과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를 위해 김천시를 대상으로 8월초부터 울외장까지, 흰쌀보리, 통곡물, 한과, 떡, 박대, 간장게장 등 13개 업체 24개 품목으로 3900만원의 사전주문을 받았다.

행사 당일인 4일에는 현장에서 12개 업체가 1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특히, 군산 특산물 흰쌀보리는 인지도가 높은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5kg짜리 상품을 1000개 이상 판매하는 성과를 보였다.

김천시와 군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회씩 정기적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우리지역 농산물을 김천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어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군산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농업인단체장, 여성농업인단체장 등 40여명의 군산시 대표단이 김천을 찾아 군산시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도시간의 상생발전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등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 선정

### 국비 10억원 확보... 산단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와 쉼 공간 조성

익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 평가를 통해 익산시 등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식산업융복합센터, 컨벤션 호텔, 센트럴파크 등 국가산단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구조고도화 사업과의 연계, 주거지와 연계해 유동인구가 많은 점 등 익산시민의 이점을 충실히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익산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국가산단과 주거지 경계부인 동서로 구간으로 구조고도화 시작점인 컨벤션 호텔(웨스턴라이프)부터 현재 건축 중인 센트럴파크까지 도로, 양측 인도 및 완충녹지 공간을 포함하며, 2020년부터 2년간 25억원(국비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과 산단의 특성을 담은 문화 콘텐츠 개발,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빛과 밤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야간 경관 개선 및 산단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쉼

공간 조성 등이다.

특히 산업단지가 영등동 주거밀집 지역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문화와 휴이 있는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춰 주변 골목 음식점 특화거리와의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산단 재생사업과 함께 진행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 산단의 잠재력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만 아닌 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익산시는 4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및 농업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의 특강과 정명재 명예농업시장을 좌장으로 4명의 전문 강사로 구성된 포럼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남홍식 박사, 국립축산과학원 이동현 연구사, 완주군 경축지원센터 손병철 상임이사, 전국친환경연합회 김영재 회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이 참여해 익산시 가족 분뇨를 자원화한 경축순환농업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가족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를 축산과 및 축산 농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희망농정위원회의 8개 분과(친환경, 식량 등) 및 농업분야 공무원이 소통·공감하며 경축순환농업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화학 비료와 유기 합성 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재래농업에 비해 경축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의 소득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화학비료보다는 사용을 선호할 수 있는 퇴비, 액비를 살포·시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기술을 제공하여 경축농가에게 편리성을 주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

군산시가 4억3000만원의 정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민간취업연계형 4개 사업에 대해 75명에게 청년일자리 제공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나보자 중소기업 청년연계사업, 청년문화기획기 획기 양성사업, 청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기 양성사업, 창업메이커 양성사업으로 시

에서는 인건비 90%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서는 인건비 10%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 후 군산고용위기중합지원센터 22번창구(450-1307)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복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472-2810)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참여기업의 경우 6일까지이고 참여청년은 18일까지이며, 오는 20일 청년 대상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복지시설 찾아

익산시의회의장 조규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4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익산시의원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합열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익산시 삼기면 소재 사랑당과 삼성동 소재 작은자매의집을 차례로 방문하여 쌀, 라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시-시에라리온, 우호협력 강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익산시와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이 상호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상호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카소스 지바오 마타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등 대표단 4명은 4일 익산시를 방문해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태 익산시의회의장 등과 면담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와 친선 증진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바탕으로 농·축산 관련 연수, 산학협력, 지방자치행정 및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세부계

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3월에 이어 익산시를 방문해 주신 카소스 지바오 마타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와 일행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시에라리온의 광물자원이 익산시 보석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라리온은 서아프리카 대서양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700만명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